"참나-참사람은 나와 남의 대립 시공의 일체를 초월합니다"

◇독특한 필체의 '오역문뇌'(五逆聞雷). 서옹스님은 선서(禪書)를 "인간의 본성이 작용해서 형성한 문자" "영원생명이 무애자재하게 약동하는 동양의 독특한 미술"이라고 평했다.

가 대립 속에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지요. 헤겔은 중세의 신본주의를 넘어서 이성을 주장했지만, 변증법적 역사관, 즉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역사'라며 투쟁의 역사를 주장했습니다. 헤겔 철학을 이어받은 마르크스 역시 투쟁하는 주체를 국가에서 계급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니체는 서양의 전통적인 이성철학에 반발하여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전쟁과 투쟁을 절대적으로 긍정한 철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을 지배하는 철학은 투쟁철학인 것입니다. 이런 바탕 위의 과학기술은 자칫 파괴로 나아갑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극한 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착한 의도를 갖는 연구일지라도 쓰임새는 정반대의 경우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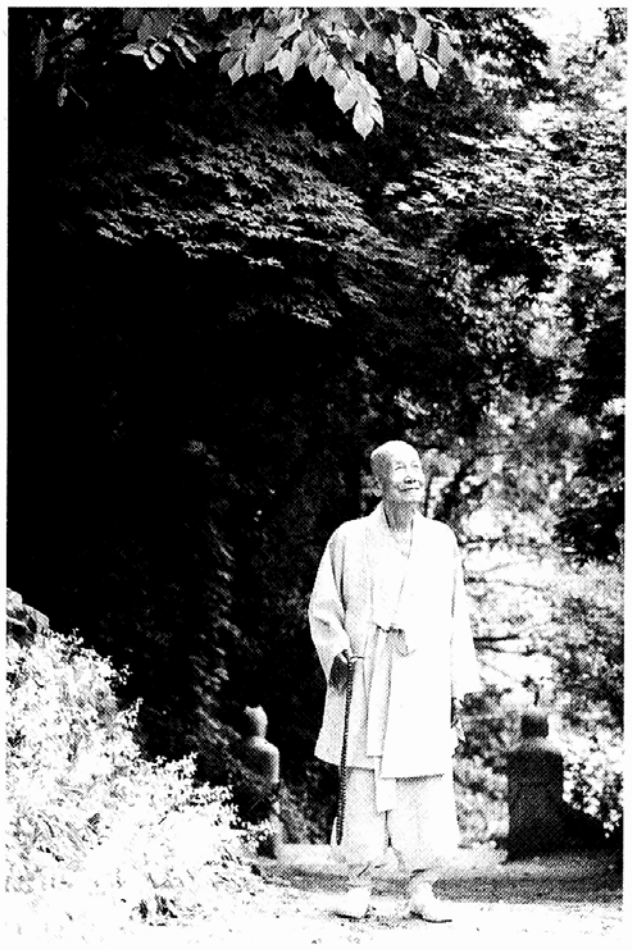
—스님께서 말씀하신 투쟁의 철학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투쟁철학의 본거지인 서구에서 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귀결처럼 생각됩니다. 과학의 발달이 곧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일 텐데요. 그래도 과학은 도달점도 없이 멈추지 않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선한 과학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앞에서 스님께서 과학을 이끄는 원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학문명이 인류에게 공헌한 바는 실로 지대합니다. 과학의 덕택으로 달을 탐사하였으며, 우주를 탐구하여 인간의 시야를 확대시켰습니다. 6억년 전의 세균화석을 다시 생명체로 재현하는 놀라운 기술의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으며, 모순된 사고체계를 규명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과학문명을 뒷받침해서 올바른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윤리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양의 다른 종교에 비해 현대의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를 구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인간관과 우주관에서는 전체가 한 생명체로서 평등하며 유일체라고 봅니다. 이 근본 생명체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이어서 근원적인 주체성을 띤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생명관에서 저절로 자비심이 나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대자연과도 조화롭게 이 세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개인·집단·국가 등 저마다의 이기주의로 과학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만들어온 오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과학문명의 병폐는 정치의 힘, 과학의 힘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불법의 힘으로 교화하고 각성해서 참나·참사람의 바탕으로 과학문명을 다시 창조함으로써 평화스럽고 행복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옹스님은 세수 89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자들을 제접한다. 내년 7월 개원하는 참사람운동본부 도량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상도동 백운암에 들렀다.

"불교와 과학의 조화 인류 구제"

"자비, 절대평등인 본연의 사랑"

오늘날 서구사회에 유행하듯 확산되고 있는 선(禪)은 단순한 동양문화의 유출이 아닙니다. 동양의 정신문화를 희구할 수밖에 없는 서양문명의 근본적인 결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입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 서양문물과 서양사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였던 동양의 저개발 경제후진국의 예와는 다른 차원의 문화수용 현상입니다. 과학문명의 원리가 인간진리를 외면한 채 너무 외형적으로만 비대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공동(空洞)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구 사람들에게 동양의 선은 새로운 지남(指南)이 되는 것이지요.

—스님께서는 선의 궁극은 참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람운동을 펼치고 계신데, 스님께서 쓰신 '참사람 결사문'에서 현대 과학문명의 폐해를 지적하시고는 "인간의 참모습은 본래로 참사람이니, 모든 인간이 자비로 행위할 때 이 지구는 종횡무진하게 자비의 망(網)으로 포용된 세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천의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 '1%만이 불교이고, 사욕이 99%'라는 가혹한 비판도 있습니다.

▲내가 두어 달 전부터 백양사 천진암에서 벽암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닷새에 한차례씩 하는데 100칙 가운데 60칙을 하고 있어요. 40여경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굴레를 벗고 팔다리를 쭉 펴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선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한국의 선은 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두껍게 덮인 무명(無明)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分別)과 아집(我執)을 타파하여 '참나(眞人)'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길입니다. '참나' 즉 참사람은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한몸이요,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 평등하고 대자대비하며 또한 자유자재합니다. 참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며 동시에 부단하게 자기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참사람의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참되고 행복한 세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참사람에 이르는 길에 무슨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지레 멈칫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자들이라면 이미 익히 들어온 가르침입니다. 확철대오해서 참사람에게도 걸리지 않아 호호탕탕(浩浩蕩蕩) 자유자재하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참사람의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서옹스님께서는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참사람주의로 살라는 당부의 마음을 담아, 최근 살림살이의 한 자락을 펼쳐 보이셨다.

隱顯自在絶蹤跡
無位眞人不可尋
烏飛兎走豈有廓
洛花又見隋流水

숨고 나타남이 자유자재해서 자취 끊었으니
무위진인의 자취를 가히 찾을 수 없네
까마귀 날고 토끼가 달리니 어찌 다함이 있으리요
물 따라 흐르는 떨어진 꽃을 보도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화스님 ②

그는 공원 앞에서 엿장수를 한 경험이 있다. 엿장수 이야기는 선대의 노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몇 해 한 일, 또 만행 삼아 엿장수를 심심치 않게 한 다른 스님의 일화 등이 있다. 나도 엿장수라면 빠질 수가 없는데..... 하하하, 엿장수 가풍이라 할 수가 없는가 보다.

지금은 등에 지고 다니는 엿장수가 없다. 짤랑짤랑 하늘을 향해 몇 차례 큰소리 내는 가위질이라야 제격이다. 손수레에 끌고 다니는 엿장수도 드물다. 포터 짐차나 소형차를 엿장수로 쓰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

고물상을 겸한 엿 집, 그게 이삼 십 년 전까지 엿장수들의 풍속도이다. 함께 잠도 잔다. 엿을 고는 새벽에는 신참들이 나무 불을 지핀다. 침을 손에 발라서 엿을 늘인다는 이야기는 엿을 늘이는 방에 들어가 보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엿을 늘일 때에는 벽에 달린 지게작대기 같은 나무에 엿을 휘감는다. 몇 차례고 늘이기를 계속하면 노란 엿이 흰 엿이 된다. 삼각으로 엿을 모으기 때문에 그 틈에 공기 구멍이 생긴다.

맨발의 자유인 답게 처음먹은 마음 끝까지

엿장수를 하는 이는 방랑기질이 좀 있다. 늙은 엿장수들의 한(恨) 섞인 이야기 속에 그런 말이 들어있다.

"자네들, 젊어서 착실하게 잘 살게. 늙어지면 나처럼 외로와. 엿장수는 천생 역마로 사주팔자가 나왔어. 허허허"

정화 스님이 왜 엿장수를 했는지 모르나, 공원 입구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엿장수를 하다가 학창 시절 은사를 만나게 되었다.

"아니? 지난번 들자니 입산 출가를 했다더니만..... 이제 엿장수를 시작했어?"

"예."

정화당은 이때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넘겼다.

한 스님은 지금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일을 한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심(下心)하고 인욕(忍辱)하는 걸 익히기 위해서다. 택시 기사로도 있다. 아마 보살의 가지가지 모습인 것 같다. 정화당은 한군데 오래 머무는 법 없이 이곳저곳 옮아 다니지만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산다.

사경(寫經)을 통해서 유식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강원에서 신심이 나서 사경을 하다보니 알고싶은 게 생겼다. 유식은 원효기신론 소(元曉起信論疎)를 사경하다가 빠져들었다. 10년 동안 구사론 유식론을 한다는 정설을 깨고 독학으로 구사 유식의 산맥을 파헤쳤다. 그리고는 금강 광맥을 찾았다. 지금 유식을 강의할만한 스님은 많지 않지만 정화당은 확신이 선 목소리로 강의한다. 막힘이 없이 어느 부분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발심(發心)해서 도를 성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난다.

그의 학교 선후배로 스님 된 이가 몇 사람이 된다. 물론 정하지 않았어도 좋은 전통으로 내려온 셈이다. 한 선배는 졸업식 무렵 학교를 찾아간다. 교실에 들어가서 모이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진로를 말해주겠소. 출가 입산들을 하시오. 세상에 할 일은 이 일 뿐이오."

그렇게 권하기도 한다. 후배들과 묻고 대답 하면서 출가를 권유하는 데 생각이 있는 이는 뒷날 선배의 뒤를 따른다.

맨발의 청춘! 영화의 제목만이 아니다. 정화 스님은 맨발의 청춘으로 산다. 양말 신기를 거부한다. 그의 거친 발은 맨발의 청춘 탓이다. 양말을 신지 않으면 좋은 점이 많다. 무좀예방이 된다. 양말을 빨지 않아서 비누를 쓸 필요가 없다. 땅을 딛는 감촉이 좋다. 양말을 부지런히 신는 스님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모르나 부지런히들 신는다. 중국, 대만의 경우, 비구니들도 겨울에 양말을 잘 신지 않는다. 더운 인도 태국 스리랑카 등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도 우리만큼 양말을 잘 신지 않는다. 우리는 획일성 그대로다. 양말을 신지 않는 이는 인사받기 바쁘다.

그림 · 문병성

"아니, 양말을 왜 안 신지요?"

나도 요즘은 그런 인사가 싫어서 신고 지낸다. 한때는 맨발의 청춘 한 회원(?)이었다. 툭 튀는 게 싫어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는다. 무좀이 있어도 신고 지낸다.

정화 스님은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양말을 신지 않는 배짱이 좋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초지일관 밀고 나간다. 뜻이 굳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주지나 상좌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지요."

하고 싫지 않은 표현을 하나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잘 도망치는 게 특기라면 특기다. 욕심이 없는 정화 스님에게 그런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자유를 떠나서 정화 스님이 어찌 하루인들 지낼 것인가. 〈끝〉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숯진식(2개월 50만원), 숯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약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양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